



황재웅

Interproximal and occlusal contacts: Mystery of food impaction and mobility

- 1985.03 ~ 1991.0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
- 1991.03 ~ 1995.0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수련 및 석사
- 1998.07 ~ 2003.06 하버드 치과대학 보철과 수련 및 박사
- 2003.07 ~ 2009.03 하버드 치과대학 full time faculty
- 2009.04 ~ 2012.03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 보철과 임상부교수
- 2012.09 ~ 현재 황재웅치과원장 및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원

고정성 보철물을 구강내에 맞추어 볼 때 인접면과 교합면 접촉의 조절은 필수적입니다. 기존 자연치에 기초한 보철물의 경우 치실로 인접면의 강도를, 교합지로 교합을 조정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치주인대가 없는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자연치 보철과 혼재하게 되면서 조절을 어떻게 해야할 지 다양한 의견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본 연자는 먼저

인접면 접촉의 체크하는 방법: 치실, shimstock

자연치-자연치, 자연치-임플란트, 임플란트-임플란트의 인접면 접촉의 설정은?

구강내에서 조절과 모델에서 조절의 차이점

food impaction에 대한 고찰

중심교합을 체크하는 방법: 교합지, shimstock, fremitus, bite registration

자연치와 임플란트가 혼재된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어야 할지..

자연치와 임플란트 교합이 어떨 때 서로 조화되었다고 할수 있을지..

eccentric occlusion의 경우

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.

이러한 가설과 고찰은 환자의 정상적 저작기능을 수복,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, food impaction의 최소화, 술자의 보철물 조절을 가능한 쉽게, 조절된 상태가 오랜기간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.